

보도 시점 2026. 9. 16.(수) 12:00 배포 2026. 9. 16.(수) 10:00

기술 강국 독일도 찾고 배우는 K-세정...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국세청 방문

- 임광현 국세청장,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과 전자세정·AI대 전환 논의
- AI대전환으로 세계가 신뢰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체불가 국세청 이뤄낼 것

□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이 최초로 9월 15일(화) 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K-전자세정과 AI대전환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- 임광현 국세청장은 크리스티안 피르케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세무행정의 디지털화, 홈택스 서비스,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.

□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「한국 국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및 AI 대전환 추진전략」을 소개하며,

-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발전과정을 공유하고,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접목하는 K-AI 세정의 추진방향과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구축 방안 등 AI대전환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.
- 독일 측도 한국의 세정 현황과 홈택스 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K-전자세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.

□ 독일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(EU) GDP의 약 4분의 1*을 차지하는 선도국이며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**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

* 2025년 독일 명목GDP 4.5조 유로, 유럽연합 명목GDP 18.8조 유로(독일 연방통계청)

** 2025년 교역규모 약 309억 불, 전체 10위, 유럽지역 1위(한국무역협회)

- 하지만 세정분야에서의 양자 고위급 교류는 2008년 한·독 국세청장회의 (베를린 개최)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.
-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단의 국세청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으로 한국과 독일이 세정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만큼 양국이 지속적으로 교류 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,
 - “이번 만남으로 한국과 독일은 전자세정과 AI를 비롯한 세무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, 양국의 협력을 넓히는 초석을 세웠다.”라고 설명했다.
- 임광현 국세청장은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하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,
 - 이에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.
-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,
 - 디지털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상훈	(044-204-2861)
		담당자	사무관	정해욱	(044-204-2882)
<협조>	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우연희	(044-204-4401)
		담당자	사무관	심은진	(044-204-4402)

참고

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회담 사진자료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하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대표단의 회담



임광현 국세청장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기념촬영

- 정해욱 국제협력팀장, 우연희 인공지능혁신담당관,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, 도리스 아헬빌름 하원의원, 카르스텐 브로데서 하원의원, 임광현 국세청장, 카이 고트살크 하원의원, 크리스티안 괴르케 하원의원, 메히틸데 비트만 하원의원, 미하엘 테브스 하원의원, 막스 룩스 하원의원